

국내 외국인 집중거주지의 유지 및 발달*

- 서울시 대림동을 사례로 -

이정현** · 정수열***

The Sustain Growth of the Foreigners' Residential Concentration in Korea : A Case Study of Daelim-dong, Seoul*

Jung-Hyun Lee** · Su-Yeul Chung***

요약 : 최근 장기체류 외국인이 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의 집중거주지가 형성되었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견된다. 본 연구는 외국인 집중거주지가 유지되고 발달하는 동력과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국내 외국인 중 가장 수가 많은 중국 국적인의 대표적인 집중거주지인 서울시 대림동을 사례로 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거, 노동, 급양, 교육, 여가, 교통, 공동체 등 존재기본기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림동은 모든 존재기본기능을 수행하면서 중국 국적인의 한국 생활을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신규 이주민을 흡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이주민 집중거주지 형성에 대한 기존 논의는 선진국 출신 외국인에게는 '자민족 단합'을, 개도국 출신 외국인에게는 '이주국에서의 차별'을 주요 요인으로 보았다. 하지만 그 유지와 발달 측면에서는 개도국 출신 외국인의 집중거주지도 자민족 단합이 투영된 존재기본기능을 통해 성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외국인 이주민 집중거주지, 존재기본기능, 중국 국적인, 자민족 단합, 서울시 대림동

Abstract : As the number of foreigners who stay for a long time increases, their residential concentrations have emerged and developed. This research aims at investigating how and why immigrants' residential concentration sustains and develops. In order to understand the roles of the residential concentration for the immigrants' everyday, we used the framework of *grunddaseins funktionen* including residence, labor, shopping, education, leisure, commuting, and community activity. Accompanied is a case study of Daelim-dong which is the largest Chinese concentrations. The result shows that combined with co-ethnic preference in residence, various amenities at the concentrations attract new immigrants and hold existing immigrants, allowing the concentrations sustain and develop.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re are the difference factors that foreign immigrants concentrate residentially: 'co-ethnic residential preference' for immigrants from more developed countries and 'discrimination' for immigrants from less developed countries. However this study shows that the residential concentrations for less-developed-country-immigrants could maintain and develop with *grunddaseins funktionen* based on co-ethnicity.

Key Words : Immigrants' residential concentration, *grunddaseins funktionen*, Chinese immigrants, Co-ethnic preference in residence, Daelim-Dong at Seoul

1. 서론

국내 외국인 등록인구는 1990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약 100만 명에 도달했으며, 전체인구의 약 1.9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양적 증가는 물론 동일한 민족 출신의 외국인끼리 근린 거주하면서 특정 민족의 집중거주지가 형성되어 성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서울에만도 기존에 형성된 서초구

반포동 프랑스인 서래마을과 용산구 이촌동 일본인 마을에 이어서 현재는 중구 광희동 몽골인 타워가 등장하는 등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 출신의 민족별 집중거주지가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거주지의 형성요인은 다양하며 제각기 상이한데, 크게 '자민족 단합' 과 이주국의 위계적 사회구조와 이주민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이주국에서의 차별과 고립'으로 요약된다. 이 중 전자는 주로 이주국에서 경제적 지위가

* 본 논문은 이정현(2013) 석사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 재구성한 것임.

**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박사과정(Ph.D.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Sangmyung University) (checosa@naver.com)

***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angmyung University)(sychung@smu.ac.kr)

높거나 내국인에게 문화적으로 존중받는 선진국 출신 외국인의 거주지 형성요인으로 지목된다. 그 예로 서초 서래마을, 한남동 독일인 마을, 동부이촌동 일본인 마을은 1970~80년대에 해당국가의 주한주재원과 그 가족을 위한 대사관, 학교, 종교 시설 등으로 구성된 자민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교적 주거환경이 좋은 곳에 형성되었다(박세훈, 2010, 78-79). 반면에 후자는 주로 이주국에서 경제적 지위가 낮거나 내국인에게 문화적으로 차별 받는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의 거주지 형성요인으로 지목된다. 물론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집중거주지도 자민족 단합적 특성을 보이나 그 형성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이주국에서의 차별과 고립을 받는다. 그 예로 안산시 원곡동의 국경없는 마을과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국계 중국인 거주지는 각각 반월·시화공단과 구로공단에 다니던 내국인 노동자가 떠날 열악한 주택에 동남아시아 위주의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과 한국계 중국인이 입주함으로써 형성되었다. 이들 거주지는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하므로 내국인과 선진국 출신 외국인의 사회로부터 차별 및 고립되기도 한다(박세훈, 2010, 83-88).

그런데 이들 집중거주지가 유지 및 발달하는 동력과 과정은 그 형성과는 상이할 수 있다. 즉 선진국 출신 외국인의 집중거주지는 그 형성과정의 연장선에서 유지 및 발달하는 반면에,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의 집중거주지는 그 형성과정에서 반드시 유지 및 발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환언하면,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은 1차적으로는 경제적 입지가 불리하거나 내국인에 의한 고립으로 인해서 방세가 저렴하고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집중 거주하지만, 2차적으로는 자신의 가용수단을 십분 활용하여 내국인에 의해 고립된 와중에서도 자민족끼리 단합하여 그 집중거주지를 유지 및 발달시키는 등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의 집중거주지가 유지 및 발달하는 동력과 과정에는 '이주국에서의 차별과 고립' 과 '자민족 단합' 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혼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의 집중거주지가 이주국에서의 차별과 고립을 자민족 단합으로 극복함으로써 유지 및 발달하는 동력과 과정을 2005년에 형성된 이래로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

는 서울시 대림동 중국 국적인¹⁾ 집중거주지의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대림동은 2012년에 거주 중국 국적인 수가 해당지역 전체 외국인의 90%에 해당하는 15,000명에 도달함으로써 국내 최대 중국 국적인 집중거주지로 성장했으며, 그에 상당하는 상점과 서비스 시설이 밀집 분포한다. 이는 2003년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쇠퇴하는 가리봉동이나 주요고객이 내국인인 중국음식문화거리(양꼬치 거리)가 있는 자양동보다는 대림동이 중국 국적인 집중거주지로서 연구하기에 수월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대림동 중국 국적인 집중거주지가 유지 및 발달하는 동력과 과정을 그들의 주거, 노동, 급양, 교육, 여가, 교통, 공동체 등 존재기본기능²⁾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해서 그 미래상을 예측해본다.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인,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의 집중거주지가 유지 및 발달하는 동력과 과정을 기존 문헌을 통해서 검토한다. 다음으로 대림동 중국 국적인 집중거주지의 존재기본기능을 파악하고자 거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지 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며,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함의 및 한계점을 언급한다.

2. 외국인 이주민 집중거주지의 유지 및 발달

외국인 이주민의 집중거주지가 이주국의 사회에 동화되어 반드시 쇠퇴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생활과 문화를 유지하면서 존속한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이주국에서의 차별과 고립'과 '자민족 단합' 이 꼽힌다. 그 중 첫째, 이주국에서의 차별과 고립이다. 외국인 이주민은 이주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결과로 주류사회와 분리된 채로 자신들의 집중거주지를 유지 및 발달시킬 수도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의 집중거주지에서 쉽게 나타난다. 그 예로 국내 수도권은 선진국 출신 외국인 이주민이 유리한 경제적 환경과 내국인의 우호적인 관심 속에서 자신의 집중거주지를 지속적으로 발달시키는 반면에,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이주민은 불리한 경제적 환경과 내국인의 적대감 또는 무관심 속에서 부득이하게 주류

사회와 분리되어 자신의 집중거주지를 유지 및 발전시킨다. 이는 선진국 출신 외국인 이주민과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이주민 간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그들 간의 체류유형별, 지역별 거주지 분화로 재현된 결과인데, 그 정도가 지나치면 이주민 간에 사회·공간적 갈등이 발생하여 자칫 국내 이주민 사회의 통합이 저해될 수도 있다(박세훈·정소양, 2010).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이주민이 형성한 안산시 원곡동의 국경없는 마을,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국계 중국인 거주지, 인천 차이나타운은 선진국 출신 외국인 이주민이 형성한 서울 서초구 프랑스인 서래마을과는 다르게 주류사회로부터 고립된 채로 존속하는데, 그 과정에서 외국인 대 내국인 간, 외국인 대 외국인 간에 사회·공간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박세훈, 2010, 96-97). 그 중에서도 안산시 원곡동은 외국인 이주민의 거주지와 상권, 그리고 내국인 주민의 거주지와 상권으로 분화되어, 내국인 대 외국인 간, 외국인 대 외국인 간 갈등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인다(한정우, 2008). 실제로 해당지역은 국내의 대표적인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이주민의 집중거주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매스컴의 주목과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그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 주민의 담론이 복잡하게 형성되었는데, 대체로 지역별로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즉 외국인과의 접촉이 많은 상업 지구에서는 내국인 상인들에 의해 ‘고객으로서의 외국인’이라는 긍정적인 담론과 심상지도가 형성된 반면, 외국인과의 접촉이 적은 주택 지구에서는 내국인 거주민에 의해 ‘이방인으로서의 외국인’이라는 부정적인 담론과 심상지도가 형성되고, 이것이 다시 매스컴을 통해 각각 확대 재생산됨으로써 사회·공간적으로 갈등구조가 복잡한 현재의 안산시 원곡동이 형성된 것이다(이선화, 2008). 그런데 이러한 개발도상국 외국인 이주민 집중거주지에 내재한 복잡한 갈등구조의 요인은 그들 각자의 아비투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비투스는 부르디외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주체(개인)가 차지한 공간(위치)과 사회적 여정에 따라 그 사회화의 결과가 상이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즉 개인의 성향과 그가 속한 공간이 상호작용하면서 사회화

가 진행되는데, 그것이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아비투스가 서로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 서초구 서래마을과 구로구 조선족 마을은 각각 다른 민족이 거주함으로써 상이한 아비투스가 형성된다. 여기에 외부인이 바라보는 이미지의 선호도에 따라서 두 마을에 대한 긍정적(프랑스인 마을) 또는 부정적(조선족 마을) 담론이 생산되고, 이것이 각 마을 주체와 공간에 영향을 주어, 새로운 아비투스가 형성되는 것이다(한준섭, 2012).

그러나 이렇게 내국인과 선진국 출신 외국인 이주민에 의해서 사회·공간적으로 고립되어 유지 및 발전하는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이주민의 집중거주지는 내부적으로 직업 및 계층분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 예로 대구시 달서구는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이주민 간에도 각자가 종사하는 직업에 따라서 그 일상생활의 시·공간적 패턴이 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경제적 지위가 낮은 제조업 종사자는 휴일에도 근무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제대로 된 종교 활동도 못하는 반면, 경제적 지위가 높은 무역업자, 외국인 강사는 업무시간 외에는 자신의 종교 활동을 포함한 여가 활동을 향유하는 것이다(김동식, 2012). 그리고 이러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이주민 집중거주지에 내재한 직업 및 계층분화가 심화되면 그 집중거주지가 분리되는데, 심지어 동일 민족 간에도 그것이 분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계 중국인은 이주 초기에 주로 가리봉동의 중국교포 마을에 정착하여 거주했다. 그런데 나중에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자 중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하여 동거하거나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자영업을 진행하고자 기존의 가리봉동을 떠나 자양동 일대로 이주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결국 그들의 집중거주지는 기존의 가리봉동 일대와 가족 동거 및 자영업 운영에서 보다 유리한 자양동 일대로 분리되었다(방성훈·김수현, 2012).

둘째, 자민족 단합이다. 외국인 이주민은 이주국에서의 차별과 고립으로 인해서 주류사회와 분리되지만, 그 과정에서 자민족끼리 연대하여 자신의 불리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극복함으로써 그 집중거주지를 유지 및 발달시킬 수도 있다. 그 예로 20세기 초반부터 미국의 시카고로 이주한 아시아계 외국인의 경우, 이주 초기에는

주류 미국인에 비해서 낮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로 인해서 차별 및 고립되어 부득이하게 지가가 낮은 도심부에 정착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신의 부와 소득을 축적하여 기존의 도심부보다 거주환경이 좋은 교외로 진출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주국에서의 차별과 고립을 가급적 자민족끼리 연대하여 극복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시카고 거주 한인인 경우에도 주로 자민족 가계를 이용하고 자민족 종업원을 선호한다(정수열·임석희, 2012). 결국 시카고 시의 교외에는 한국인, 중국인, 인도인, 필리핀인 등 아시아계 외국인의 민족별 집중 거주지가 형성되어 유지 및 발전한다. 즉 이주 초기에 도심부에 형성된 그들의 집중거주지가 경제적 환경의 개선과 자민족 단합을 통해서 교외의 특정 지역으로 진출(교외화) 및 밀집(재집중)하는 것이다(정수열, 2008). 이렇게 자민족 단합에 의해서 형성된 외국인 이주민 집중거주지는 국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조선족이 밀집한 서울시 대림동은 그들을 국내사회에 진출시키는 통로로서의 기능과 정착 국내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시련을 당한 그들을 치유하는 보급자리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유지 및 발달한다(서지수, 2011). 게다가 서울시 이태원은 그 저렴한 방세와 생활비용이라는 낮은 진입 장벽에 의해 흡인된 파키스탄과 나이지리아 인이 자신의 문화를 해당지역에 배태하는 과정에서 그들 각자의 집중거주지로 성장한 이래로 유지 및 발달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한국과 모국 간의 무역을 통해 '상향식 세계화'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집중거주지를 초국가적으로 발달³⁾시키고 있다(고민경, 2009).

한편 이러한 외국인 이주민 집중거주지의 유지 및 발달은 '트랜스로컬리티⁴⁾'라는 개념을 통해서 보다 상세히 고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조선족의 기원지인 연변지역은 최근 한국에서 일하는 조선족의 해외송금을 통해 가계경제가 성장하고 나아가 사회기반시설이 확충됨으로써 지역사회가 발전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성TV, 인터넷, 스마트폰 등 실시간으로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통신기기가 보급됨으로써 그들의 일상과 지역경관이 한국적으로 변화한다. 특히 연결되는 한국의 아이들을 선호하고 그 패션을 따라하는 조선

족 젊은이의 일상과 최근 거리 곳곳에 형성된 롯데리아, 카페베네 등 한국계 프랜차이즈 경관에 의해서 한국적인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기타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이다(이영민 등, 2013). 또한 미국 패어팩스 카운티로 교육이주한 한국인도 미국사회와 교류를 하되 완전히 동화되지는 않고, 나름대로 모국의 문화를 재현함으로써 트랜스로컬리티를 형성한다. 그들은 한국보다는 미국의 교육환경을 선호하여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정착 이주국에서도 자녀들에게 눈높이 교육을 비롯한 한국식 교육을 시킴으로써 독특한 로컬리티를 형성한다(이영민, 2012). 한편, 서울 동대문에 신금호타워를 중심으로 형성된 몽골타운도 트랜스로컬리티의 결과이다. 몽골타운은 1993년 한국과 몽골을 오가던 몽골인 보따리 무역상이 교통 접근성이 좋은 동대문 일대에 임시거주지를 마련했는데, 마침 그들과 근린 거주하던 러시아인이 귀국하면서 형성된 빈 거주공간으로 더 많은 몽골인이 유입되면서 형성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인이 이용하는 동대문의 쇼핑센터가 몽골인의 일상경관에도 포함됨으로써 한국과 몽골문화가 혼재한 상업·거주지로 발달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의 기타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곳만의 트랜스로컬리티를 형성하는 것이다(이영민·이종희, 2013).

그런데 이러한 트랜스로컬리티 개념을 혼종성과 접목함으로써 외국인 이주민의 복잡한 정체성 및 네트워크를 고찰하는 연구도 진행된다. 그 예로 자양동 거주 한국계 중국인은 이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면서도 중국 본토와의 관계도 유지하고자 한다. 즉 외국인 지위로서의 한국계 중국인이 자양동에 정착할 의사를 보이는 '장소의 착근성'과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중 양국에 연계 입지하려는 '네트워크의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자신의 상황에 적합하게 한국어와 중국어를 선택적으로 구사함으로써, 한-중 양국의 매개자로서 혼종적 정체성을 유지한다(이영민 등, 2012). 대림동의 경우에도 한국계 중국인의 거주배경인 생계구축, 자민족 선호, 외국인 지원 시설 입지라는 공통성을 제외하면 그 정체성은 부류별로 상이하다. 즉 한국사회에 동화의 의지가 강한 부류는 자신이 한국인 같다고 생각하

는 반면, 중국 국적을 강조하는 부류는 자신을 그저 중국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한-중 양국에서 배제를 당했던 부류는 자신이 한국인도 중국인도 아닌 그저 조선족이라고 생각한다(김영로, 2011). 그런데 이러한 특성은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즉 한국계 중국인은 단기간의 노동수입을 갖고 본국으로 금의환향하고자 국내로 이주하지만, 저마다 실패와 성공의 과정에서 본래의 목적을 포기하고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 동족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부류와 본래의 목적 달성에 동족이 방해되므로 동족으로부터 격리되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부류, 그리고 본래 목적이 파생된 형태로 한국에서 성공하고자 내국인과의 접근성이 좋은 주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부류로 분화된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한 가지 유형의 네트워크에 집착하기보다는 여건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네트워크에 유연하게 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2007년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한-중 간 통행이 활성화된 배경과 인터넷의 발달로 한-중 간 실시간 통신이 가능해진 배경이 이들 각자의 네트워크를 초국가적, 역동적으로 변화시킨 결과이기도

하다(김현미, 2009).

지금까지 외국인 이주민 집중거주지의 유지 및 발달 동력과 과정을 ‘이주국에서의 차별과 고립’과 ‘자민족 단합’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이주민 집중거주지는 이주국에서의 차별과 고립 속에서도 자민족 단합으로써 유지 및 발달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두 가지 요인 중에서도 자민족 단합을 위주로 대림동 중국 국적인 집중거주지의 유지 및 발달 동력과 과정을 그 존재 기본기능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그 미래를 예측해본다. 이는 이주국에서의 차별과 고립을 자민족 단합으로써 극복한 대림동의 특성을 반영한 동시에, 주로 한국계 중국인에 대한 심리분석, 거주지 선택, 장소성 연구에 집중된 기존 대림동 연구에 비해서 본 연구가 가지는 차별성을 의미한다.

3. 연구지역 개관

대림동에서 연변거리가 형성된 대림 2동은 중국 국적인의 거주에 필요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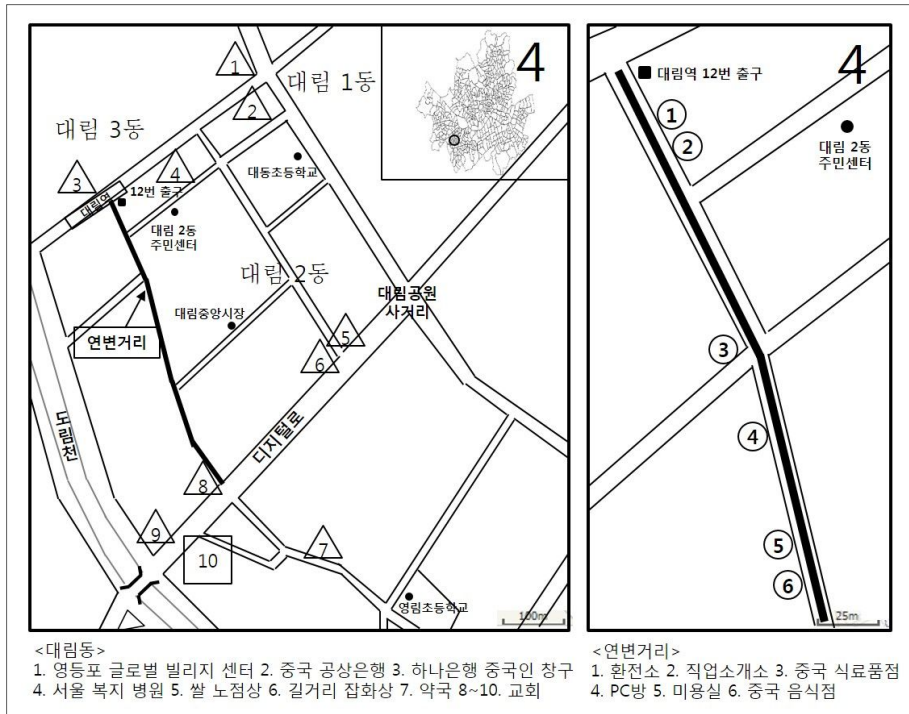


그림 1. 대림동 답사지역

지함으로써 그들 집중거주지의 유지 및 발달에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다⁵⁾.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연번거리에 확산되는 중국어 간판과 중국서민음식은 그 집중거주지가 자민족 단합적으로 발달하는 면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대림동 국적인 집중거주지가 유지 및 발달하는 동력과 과정을 알아보고자 그 거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와 인터뷰를 했다. 우선 설문지 조사는 거주 결정권을 보유한 30~40대에 해당하는 32명(한국계 중국인 16명, 중국인 15명, 귀화 한국인 1명)을 대상으로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간 진행되었으며, 각 문항은 대림동 거주 중국 국적인의 인적사항, 국내활동, 가족사항, 본국활동, 향후계획을 파악하고자 작성되었다. 그리고 인터뷰는 <그림 1>과 같이 중국 국적인이 대림동에서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수차례 답사하면서 진행되었다. 그림에서 왼쪽 지도는 중국 국적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급양, 교육, 종교시설을 나타내고, 오른쪽 지도는 왼쪽 지도의 연번거리를 확대하여 중국 국적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급양, 여가 시설을 나타낸 것이다. 이외에도 대림동에는 여행사, 물류업체, 휴대폰 대리점 등 다양한 시설이 입지함으로써 중국 국적인의 생활 및 거주에 필요한 존재기본기능이 발달해 있다. 이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4. 대림동 중국 국적인 집중거주지의 유지 및 발달

대림동에는 중국 국적인의 생활과 거주에 편의를 제공하는 주거, 노동, 급양, 교육, 여가, 교통, 공동체 등의 존재기본기능이 발달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자민족 단합 또는 그에 기초한 초국가적 색채를 띠며 그 집중거주지를 유지 및 발달시키고 있다.

1) 주거

중국 국적인의 대림동 거주배경은 다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대림동에 형성된 그들의 친족과 지인의 거주지이다. 즉 그들은 대림동의 친족 또는 지인과 동거하면 거주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

므로 가급적 대림동에 거주하게 된다. 둘째, 대림동의 부동산 서비스이다. 즉 국내에 친족과 지인이 없는 중국 국적인이 대림동에 거주하려면 해당 지역의 고시원을 알아보거나 부동산을 찾아 거주지를 안내받아야 한다. 이는 대림동의 친족 또는 지인과 동거하다가 독립하여 대림동에 자신의 거주지를 마련하려는 중국 국적인에게도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친족과 지인의 거주지와 부동산 서비스는 상이한 방식으로 대림동 중국 국적인 집중거주지를 유지 및 발달시키면서도 이들의 가족 재결합 과정에서 연계된다.

“제 부모님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숙부님이 미리 부동산에서 구하신 월셋방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세방을 마련해서, 중국에 있는 어머니와 저를 초청했고, 현재는 대림동에 한 가족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김OO, 한국계 중국인, 10대 남성)

그리고 이러한 가족 재결합은 해당 가족 구성원과 친족 또는 지인관계에 있는 또 다른 중국 국적인의 대림동 이주 계기가 된다. 이는 주로 취업과 어학의 목적으로 본국에서 가족, 친척, 친구의 도움을 받아 대림동으로 이주한 중국 국적인이 그들과 단기 또는 장기간 동거한다(정수열·이정현, 2014)는 사실과 연계된다. 결국 친족과 지인의 거주지와, 부동산을 통한 저렴한 월셋방은 중국 국적인의 대림동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그 집중거주지를 유지 및 발달시킨다.

2) 노동

대림동 중국 국적인은 친족과 지인의 소개로 대림동이나 그 밖의 수도권에서 주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그 업종과 근무지, 취업 정보원에서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이 약간 상이하다(표 1). 표는 중국 국적인의 근무지와 업종을 교차하여 보여준다. 예를 들어 서울(대림동)과 자영직의 교차란에 있는 중국 식료품점(2)은 2명이 대림동 내 중국 식료품점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선 근무지를 보면, 경기도(6명)보다 서울(27명)에

표 1. 대림동 중국 국적인의 업종과 근무지

업종 \ 근무지	서울(대림동)	서울(대림동 외)	경기도	불특정	민족별 합계(업무)
배달직	마켓 식료품점(1), 식당(1), 신문사(1)	중국집(1)			한국계(4)
종업직	식당(1)	한정식 식당(1)			한국계(1), 중국인(1)
요리직	식당(1)	중식 레스토랑(1)			한국계(1), 중국인(1)
관리직	마트(1)		제조회사(1)		한국계(1), 중국인(1)
판매직	휴대폰 가게(1)	소품가게(1)	백화점 면세점(1)		한국계(1), 중국인(2)
자영직	중국 식료품점(2), 쌀가게(1), 식당(1)				한국계(3), 중국인(1)
사무직		회사(1), 한중 번역소(1)	제약회사(1)		한국계(1), 중국인(2)
전문직		한의원(1)			중국인(1)
금융직	중국계 은행(1)				중국인(1)
연수인턴직		공단 연구소(1)			한국계(1)
번역	번역회사(1)	건축 거래처(1)			중국인(2)
생산직			핸드폰 공장(1), 화학공장(1)		중국인(2)
일당직	현장(4)	현장(1)	현장(1)	현장(1)	한국계(6), 중국인(1)
민족별 합계(지역)	한국계(12), 중국인(5)	한국계(3), 중국인(7)	한국계(3), 중국인(3)	한국계(1)	총계(34명)

주) 한국계: 한국계 중국인, 괄호 안 숫자는 응답자 수를 의미함.

서 근무하는 비중이 높는데, 특히 대림동은 서울 내의 대림동 이외 지역(10명) 보다 높은 비중(17명)을 보인다. 이는 그들이 가급적 대림동에서 근무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한편 지역의 민족별 합계를 보면 경기도를 제외한 대림동과 그 외 서울지역에서 각각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이 우세하다. 특히 대림동에 많은 배달직(4명)과 자영직(4명)의 민족별 합계(업무)에서 한국계 중국인이 중국인에 비해서 7:1로 우세하다. 즉 대림동의 한국계 중국인은 자민족이 운영하는 가게를 애용하면서 그와 관련된 식당, 식료품점 등의 자민족 상권을 유지 및 발달시키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려는 자민족 가게 주인에 의해서 고용되는 특성이 있는 반면, 중국인은 한국계 중국인의 사회에 어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동족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림동에서 한국계 중국인 상권 이외의 업무나 서울과 경기도의 기타 지역에 분산하여 근무하려는 특성이 있다. 이는 표에서 대림동

의 중국계 은행, 번역사와 서울 대림동 이외 지역의 한의원, 건축거래처, 경기도의 핸드폰 공장 및 화학 공장에서 중국인만 근무하고 있는 사실로 알 수 있다.

한편 그들은 직업소개소를 통한 구직보다는 친족과 지인의 소개로 구직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실제로 상기한 34명 중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해 구직했다고 대답한 인원은 한명에 불과했다. 이는 다음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다.

“요즈음 중국인들도 고급스러워져서, 예전에 했던 3D 업종보다는 편한 사무직을 원해요. 한국어를 잘하면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봐주는 일이 주로 공장노동이다 보니 생계가 어렵거나 급하게 구직하려는 이들만 찾아오고,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편한 직업 알아봐주는 식으로 일자리를 구한다고 들었어요.”(직업소개소 상담원, 10년차 근무, 40대 여성)

결국 대림동 중국 국적인은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을 막론하고 가급적 직업소개소에서 구직하기 보다는 친족과 지인을 통해서 취업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민족 단합적 특성이 드러난다.

3) 급양

대림동에는 중국 국적인을 위한 다양한 급양시설이 분포하는데, 이는 상점과 서비스로 분류된다. 첫째, 상점이다. 우선 중국 식료품점은 대림동 내 교차 골목마다 있어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인에게 중국식품과 조미료, 과자류를 판매하고 그 중 일부는 한국식품도 판매함으로써 그들의 식생활에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대림동 중앙시장도 한국음식은 물론 중국음식을 반찬거리와 길거리 음식으로 판매함으로써 비교적 짙은 중국색을 보인다. 그 밖에 대림동에는 철물점, 화장품 가게는 물론 공인중개사 겸 마트와 정기적인 노점상이 분포하여 중국 국적인의 생활과 거주에 편의를 제공한다.

둘째, 서비스이다. 대림동에는 휴대폰 대리점과 길거리 전화기 등의 통신서비스와 미용실 해외송금, 의료, 세탁, 컴퓨터 수리와 관련된 다양한 개인서비스 시설이 입지하여 이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우선 해외송금 서비스는 중국OO은행과 OO은행 중국인 전용 창구가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 국적인이 자신의 국내 소득을 본국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생활비로서 송금하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특히 중국OO은행은 국내에 진출한 중국계 은행으로서, 국내의 K은행과 협력하여 중국 국적인이 국내 K은행의 현금인출기로 한화를 찾아 본국의 중국OO은행으로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인출기의 해외송금기능을 통해 본국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직접 송금하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중국OO은행에는 K은행 기계가 있어서, 한국에서 일하고 중국으로 송금하려는 중국인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K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찾아서, 중국OO은행의 본인계좌로 바로 이체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중국OO은행 계좌가

있는 한국인들도 중국에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간 자녀들을 위해 여기에서 송금하기도 하죠.” (CD기 관리대원, 20대 남성)

그리고 이러한 본국 송금은 중국에 있는 친족과 지인의 거주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나아가 그들 고향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함으로써 한-중 양국 간 초국가적 연계성을 띤다. 다음으로 의료 서비스이다. 대림동에는 지역병원과 동네의원 등 여러 의료시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 비대상인 외국인에게 진료비의 약 10~20%를 감면해주는 OO병원이 대표적이다. 해당 병원은 2000년에 개원하여 고려대학교 OO병원과 협력진료 관계를 구축하고 한국과 중국의 교회단체와 결연했으며, 현재는 중국동포지정병원으로서 중국 국적인의 자민족 단합은 물론 그들의 한-중 간 초국가적 연계를 도모하여 발달하고 있다.

4) 교육

대림동에는 중국 국적인을 위한 무상과 유상교육시설이 분포한다. 첫째, 무상교육시설은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대림동 거주 중국 국적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자 대림 3동에 설립한 영등포 글로벌 빌리지 센터⁶⁾가 대표적이다. 해당 센터는 다른 지역의 글로벌 빌리지 센터와 마찬가지로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컴퓨터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대림동은 물론 영등포구나 기타 지역의 중국 국적인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베트남, 미얀마)인과 유럽계 미국인까지 방문할 정도로 초국가성을 띤다. 그런데 국적별 수강생을 보면, 이곳의 한국어 교재에서 해설하는 글이 영어 외에도 중국어가 있을 정도로 중국 국적인이 가장 많다⁷⁾. 이는 대림동 중국 국적인이 가급적 무상으로 한국어와 컴퓨터 교육을 받고자 해당 센터로 집중한 결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해당 센터는 한국어 반, 컴퓨터 반, 중국어 반을 개설하여 중국 국적인의 어학과 컴퓨터 교육을 담당한다. 우선 한국어 반은 한국어 보통반,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반 등 정규과정 외에도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중국 국적인을 위해서 중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특별

반과 자원 봉사자에 의한 한국어 멘토링 수업 등의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어서, 중국 국적인에게 열렬한 관심을 받는다⁸⁾. 다음으로 컴퓨터 반은 한국어를 일정수준 구사하는 외국인의 컴퓨터 운용과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개설되었으며, 초급, 중급, 취업실무 과정이 있다. 그 중 취업실무 과정은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획득하려는 수강생에게 인기가 있어 그 수강인원이 열 명으로 제한될 정도로 경쟁률이 높다.

“컴퓨터 교실은 열 좌석으로 공간도 협소해서, 수강생 초과시 보조의자에 앉아서 들을 수 있는 한국어 수업과는 달라요. 그래서 수강생들의 경쟁도 치열하고, 게다가 한국에서 컴퓨터만 잘 다루어도 웬만한 사무직에 취업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있어서 더욱 그런 것 같아요.”(센터 직원, 30대 남성)

한편, 중국어 반은 주로 한국생활에 적응한 7~15세의 중국 국적인 자녀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본국으로 귀환해야 할 때, 그들의 중국어 능력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개설되었다. 이는 앞선 한국어와 컴퓨터 수업을 주로 중국 국적이 한국에 취업하거나 귀화하려는 목적으로 수강하는 것과 대조적이며, 대립동을 포함한 국내 중국 국적인의 초국가적 연계 방식을 드러내는 단면이기도 하다⁹⁾. 그런데 이와는 다른 목적으로 중국어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부모보다 한국어를 잘하지만 중국어는 못하는 자녀가 센터에서 중국어 수업을 들어서 중국어를 익히고 집에서 부모에게 중국어로 한국어를 알려준다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부모보다 한국어를 잘하지만 중국어는 못하는 학생이 자신이 배운 한국어를 여기서 배운 중국어로 자신의 부모에게 알려주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센터 직원, 주무관, 40대 남성)

둘째, 유상교육시설로는 대립동 주변에 입지한 요리, 컴퓨터, 마사지 등의 전문기술학원들이 있다. 이들은 주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서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상향하여 국내 영주자격

(F5)에 도전하거나 더 좋은 일자리를 알아보려는 중국 국적인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도와준다. 실제로 대립동에는 F4 취득을 위한 전문기술자격증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학원전단지과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자신의 체류자격을 향상하려는 중국 국적이인 해당학원에 많이 다닌다. 이렇게 대립동 중국 국적이인은 국내 이주 초기에는 한국어 능력을 향상하고자 영등포 글로벌 빌리지 센터에 다니지만, 정작 국내 취업이라는 본래목적 실현하기 위해서 전문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전문학원에 다니게 된다. 이는 한국어 자격증과 전문기술자격증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한국에 정착하려는 중국 국적이인의 의지와 실천이 대립동이라는 공간에 표출된 결과이기도 하다.

5) 여가

대립동에는 중국 국적이인을 위한 다양한 여가시설이 있다. 첫째, 노래방과 당구장 및 뷰티샵이다. 중국 국적이인은 대립동에 분포하는 다양한 여가시설에서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상의 무료함을 달랜다. 둘째, PC방이다. 대립동에는 직장인을 위한 여가시설이 많은 반면에 학생을 위한 여가시설은 드물다. 따라서 중국 국적이인 자녀세대는 주로 대립동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과 웹서핑을 하면서 여가를 보낸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PC방 친구를 사귀게 되고, PC방 기반의 소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다니는 PC방에 자주 모이게 된다.

“여기 하루 평균 고객이 300~400명이고, 대부분 20~30대 조선족 또는 한족 남성이죠. 여기 회원가가 1시간에 700원으로 저렴해서 돈이 별로 없는 학생들도 게임하러 많이 와요. 그리고 게임을 하다가 마음이 맞으면 친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는 서로 게임 친구가 되어서 3~5명이 몰려다니면서 게임하는 것도 보여요.”(대립동 소재 OO PC방 종업원, 한국계 중국인, 20대 남성)

셋째, 음식점이다. 이는 평일 근무를 마치고 혼자 술로 심신을 달래거나 주말에 가족을 동반하여

외식하려는 중국 국적인에게 여가장소로 기능한다. 특히 대림역 근처에는 큰 연회석을 갖춘 고급 음식점이 있어서 간만에 친족과 지인 모임을 가지려는 중국 국적인에게 적합한 여가기능을 제공한다. 그 밖에 대림동에는 중국 국적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PC방과 당구장이 합쳐진 클럽도 있다.

6) 교통

대림동에는 중국 국적인을 위한 교통이 발달해 있으며, 이는 크게 국내교통과 해외교통으로 분류된다. 첫째, 국내교통이다. 대림동에는 2호선과 7호선을 환승할 수 있는 대림역을 비롯하여 근처 구로구나 관악구 방면으로 통행하는 녹색 지선버스의 정류소가 분포하고 있어서, 국내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이 대림동으로 이사를 오거나 아니면 본국의 중국 국적이 출입국 사무소를 거쳐 전철이나 버스를 이용해 대림동으로 이주하는 데 편의를 제공한다. 특히 대림동은 국내 외국인의 대표적인 통근유출형¹⁰⁾ 지역으로서 이곳의 중국 국적인도 자신의 통근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수단으로서 전철과 버스를 애용한다. 이는 <표 2>로도 나타난다. 표를 보면 대림동 중국 국적이 자신의 거주지와 근무지 간의 거리와 소요 시간에 따라 도보, 자전거, 버스, 전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선택적으로 활용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국내교통은 항공기나 선박을 통해 국내로 이주하거나 타지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인에게 대림동 유입수단으로 기능하는 동시에, 그들의 통근과 일상생활권역을 확대함으로써 더 나은 일자리나 여가장소를 추구하는 중국 국적인의 생활을 윤택

하게 한다.

둘째, 해외교통이다. 대림동에는 중국 국적인을 대신하여 항공권을 구입해주거나 국내이주를 위한 행정수속을 대행함으로써 그들의 이주 교통수단으로 기능하는 여행사가 많이 있다. 이들 여행사는 중국 국적인의 국내이주와 관련한 정기적인 업무 외에도 체류자격 미달로 국내이주가 어려운 중국 국적인을 위해서 그들의 체류자격을 향상시키는 행정사의 업무도 수행한다. 결국 이들 여행사는 국내로 이주하려는 중국 국적인에게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여 그들이 대림동을 비롯한 국내각지로 이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7) 공동체

대림동 중국 국적인은 동족 친척과 친구, 내국인 친척과 친구 등으로 구성된 이주민 공동체에 소속되어 국내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고민을 나눈다. 다만 이들 공동체는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 별로 분리되는데, 이는 대림동 이주 네트워크에서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의 상이한 행태가 각자의 커뮤니티에 연계된 결과로 해석된다(정수열·이정현, 2014). 그리고 이러한 상이성은 대림동 중국 국적인의 교류장소가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별로 분화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즉 한국계 중국인은 자택, 친척집, 친구집 등의 거처와 근무처 및 교회에서 자주 교류하는 반면에 중국인은 영등포 글로벌 빌리지 센터와 커피숍, 시내 음식점 등의 상업지에서 주로 교류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 중 교회는 중국 국적인의 신앙과 교류 외에도 그들의 대림동 이주에 적극 일조함으로써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보인다.

표 2. 대림동 중국 국적인의 통근 현황

근무지	인원	교통수단	소요시간
대림동	10명	도보(8명), 도보·자전거(1명), 버스(1명)	1~30분
영등포구	2명	버스(1명), 전철(1명)	15~40분
서울 기타	5명	버스(2명), 전철(2명), 도보·자전거(1명)	20~50분
경기도	5명	전철(4명), 버스·전철(1명)	30~90분
불특정	1명	전철(1명)	30~70분
합계	23명	도보(8명), 도보·자전거(2명), 버스(4명), 전철(8명), 버스·전철(1명)	1~90분

국내 외국인 집중거주지의 유지 및 발달

“여기(교회1)는 중국어로 예배를 드리니까 한국어 못하는 한족들이 다른 교회보다는 여기로 많이 오죠. 물론 조선족 신자도 많고요. 그래서 저도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지인들을 여기 교회에 다니게 해요. 그리고 최근 늘어나는 한족신자를 위해서 한족전용 교회(교회2)를 저쪽 지하에 만들었어요. 거기도 우리교회예요.” (교회1 신자, 한국계 중국인, 40대 여성)

즉 한국계 중국인 교회1은 최근에 지은 중국인 교회2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강력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대림동의 교회는 위와 같이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 국적인을 신자로 받아들이는 한편, 자기 교회의 외인선교 활동을 위해서 한국계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중국 동베이(東北)지역과 대림동 간의 트랜스로컬리티를 형성한다.

“집에서 친할머니, 외할머니, 어머니가 교회에 잘 다니세요. 세 분은 중국 동베이(東北)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믿었어요. 동베이(東北)에 있는 조선족은 대부분 교회에 다니고, 한국에서도 그 곳으로 선교를 많이 와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한국소식을 접합니다.”(김OO, 한국계 중국인, 10대 남성)

<그림 2>는 대림동 전체 교회 중에서 연구자가 방문한 교회이다. 해당 그림에서 교회 1~3은 각각 3장에 있는 <그림 1>의 8~10번에 해당한다. 우선 교회1은 연변거리와 디지털로가 만나는 곳에 있는 건물의 3층에 위치한다. 해당 교회의 신자는 약 200명이며 대부분 중국 국적인데 중국인 보다는 한국계 중국인이 많다. 그리고 교회2는 상기한 인터뷰에서도 언급했듯이 교회1에서 증가하는 중국인 신자를 위해서 최근 다른 건물 지하에 따로 만든 같은 소속의 교회이다. 교회2 사진을 보면, 지하에 작은 창문이 있는데 그 안쪽으로 예배 및 회합을 한다. 사진에 있는 어린이들은 중국인 신자 부모의 자녀들이다. 교회2에서는 대림동에 거주하는 중국인 신자와 그들의 자녀가 예배하는데 일부 부모들은 교회1이나 교회 3에서 예배를 마치고 자녀들을 데리러 교회2에 오기도 한다.

“여기는 한족들 예배 외에도, 어린이 예배반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예배가 보통 먼저 끝나니까, 아이들이 예배당 밖에서 부모님들을 기다리면서 놀고 있으면 옆의 OO교회나 건너편의 OO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옵니다.”(중국인 신자, 30대 남성)

즉 세 곳의 교회는 서로 협력하면서 대림동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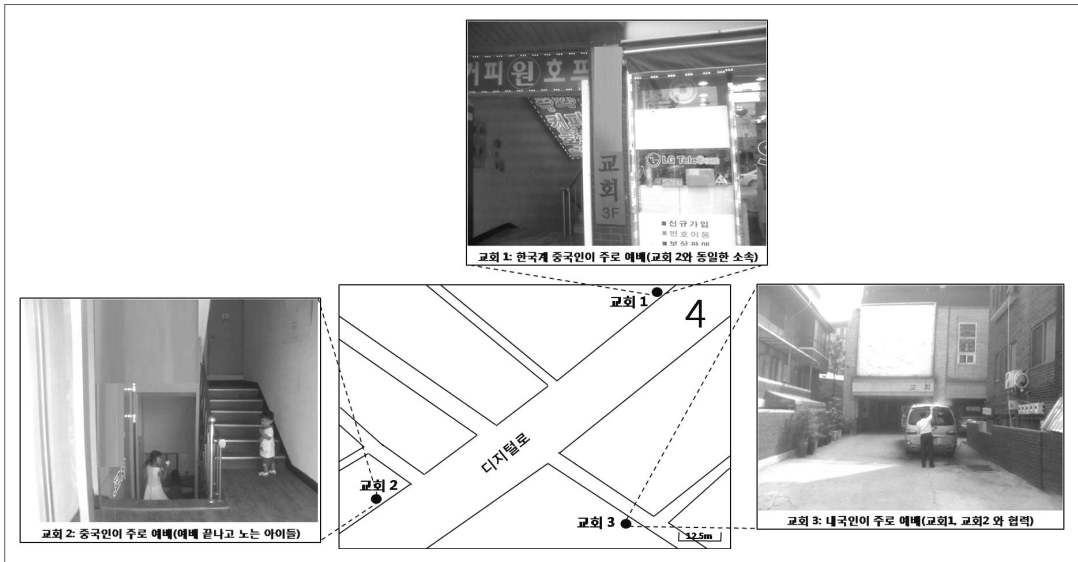


그림 2. 대림동의 교회 위치와 특성 (촬영일자: 2013.06.02)

표 3. 대림동 중국 국적인 집중거주지의 유지 및 발달

	특성 요약
주거	1. 대림동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인은 자신의 친족 및 지인과 동거함으로써 그들의 대림동 이주를 촉진. 2. 대림동의 부동산은 중국 국적인에게 월세, 전세, 자가주택을 안내함으로써 그들의 거주를 유도.
노동	1. 대림동 중국 국적인은 거주지 근린에 자영업을 함으로써 동족을 종업원으로 고용. 2. 대림동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인은 친족과 지인을 비롯한 동족에게 구직기회를 제공. 3. 대림동의 직업소개소는 급하게 구직하려는 중국 국적인에게 일자리를 제공.
급양	1. 대림동의 중국 식료품점과 중앙시장은 중국 국적인에게 주로 중국식품을 제공. 2. 대림동의 통신 및 개인서비스는 중국 국적인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 3. 대림동의 중국OO은행과 OO은행 중국인 전용 창구는 중국 국적인의 본국송금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초국가적 활동에 기여. 4. 대림동의 OO병원은 중국 국적인의 자민족 단합에 필요한 의료복지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지속적인 대림동 거주 및 이주의 배경으로 작용하며, 현재 한-중 교회단체와의 결연을 통해 중국동포지정병원으로서 초국가적 연계를 도모하여 발달.
교육	1. 영등포 글로벌 빌리지 센터는 중국 국적인의 국내취업과 귀화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및 그들 자녀의 중국학교 진학을 위한 중국어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대림동 중국 국적인의 교육수요에 부응. 2. 대림동의 전문기술학원은 체류자격을 향상하여 더 좋은 직업을 알아보거나 국내에 정착하려는 중국 국적인에게 필요한 전문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유상으로 제공.
여가	1. 대림동의 노래방, 당구장, 뷰티샵은 중국 국적인 부모세대에게 일상으로 복귀할 활력을 제공. 2. 대림동의 PC방은 중국 국적인 자녀세대에게 소중한 여가장소로 기능하는 동시에 그들의 PC방 기반 소모임이 형성되고 지속되는 배경으로 작용.
교통	1. 대림동의 전철과 버스는 중국 국적인의 대림동 이주와 그들의 통근과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 2. 대림동의 여행사는 중국 국적인의 국내이주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대행함으로써 그들의 대림동 거주를 유도.
공동체	1. 대림동의 이주민 공동체는 중국 국적인의 대림동 생활과 거주에 편의를 제공. 2. 대림동의 교회는 중국 국적인의 주요 교류장소로 기능하는 동시에 중국 동베이 지역에 대한 외인선교를 함으로써 중국 국적인의 대림동 거주와 이주에 적극 일조.

주 중국 국적인을 신자로 받아들이고 그 신자가 다시 자기 교회를 중국에서 온 지인에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교세를 확장한다. 결국 이들 교회는 중국 국적인의 자민족 단합성과, 교회를 통한 그들의 한-중 간 초국가성이 연계되는 배경에서 대림동 중국 국적인 집중거주지를 발달시킨다.

8) 소결

지금까지 대림동 중국 국적인 집중거주지가 유지 및 발달하는 동력과 과정을 그 존재기본기능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그 결과 대림동 중국 국적인은 국내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차별과 고립을 자민족 단합으로써 극복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존

재기본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자민족 단합에 의해 형성된 존재기본기능은 중국 국적인의 생활과 거주에 편의를 제공하므로 다른 지역의 중국 국적인을 대림동으로 이주시키는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즉 대림동 중국 국적인의 자민족 단합과 그들의 존재기본기능은 상호 선순환하며, 자신의 집중거주지를 유지 및 발달시킨다(표 3).

5. 결론

본 연구는 국내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이주민 집중거주지의 사례로서 서울시 대림동 중국 국적인 집중거주지가 유지 및 발달하는 동력과 과정을

그들의 자민족 단합적 특성을 위주로 그 존재기본 기능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고찰했다. 그 결과 대립동의 주거, 노동, 급양, 교육, 여가, 교통, 공동체 등 존재기본기능은 중국 국적인의 대립동 생활과 거주에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또 다른 중국 국적인을 대립동으로 이주시킴으로써 그들의 자민족 단합을 촉진하고, 그 중 일부는 초국가적으로 발달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를 존재기본 기능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립동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인의 친족과 지인은 국내로 이주하는 중국 국적인에게 동거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대립동 거주를 유도하고, 자신과 친족 또는 지인관계에 있는 또 다른 중국 국적인을 대립동으로 이주시킨다. 또한 대립동의 부동산도 국내에 친족과 지인이 없거나 친족 또는 지인 동거로부터 독립하여 중국과 한국의 타지에 있는 가족과 재결합하려는 중국 국적인에게 적합한 거처를 유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대립동 거주를 유도한다. 둘째, 대립동에 발달한 중국 국적인의 자영업과 친족과 지인 네트워크 및 직업소개소는 중국 국적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대립동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족시킨다. 셋째, 대립동의 중국 식료품점과 중앙시장은 중국 국적인에게 주로 중국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식생활을 통한 자민족 단합을 촉진하며, OO은행과 OO은행 중국인 전용 창구는 중국 국적인의 본국송금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초국가적 활동에 기여한다. 또한 OO 병원은 중국 국적인의 의료복지에 기여함으로써 그들의 지속적인 대립동 거주 및 이주의 배경으로 작용하며, 한-중 교회단체와의 결연을 통해 중국 동포지정병원으로서 초국가성을 띠며 발달한다.

넷째, 영등포 글로벌 빌리지 센터는 중국 국적인의 국내취업과 귀화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및 그들 자녀의 중국학교 진학을 위한 중국어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대립동 중국 국적인의 교육 수요에 부응하며, 대립동의 전문기술학원은 체류자격을 향상하여 더 좋은 직업을 알아보거나 국내에 정착하려는 중국 국적인에게 필요한 전문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유상으로 제공한다. 다섯째, 대립동의 노래방, 당구장, 뷰티샵과 PC방은 각각 중국 국적인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대립동 생활에 활력이 되는 여가장소로 기능한다.

여섯째, 대립동의 전철과 버스는 국내 중국 국적인의 대립동 이주와 그들의 통근과 일상생활에 공간적 편의를 제공하고, 여행사는 국내로 이주하려는 중국 국적인에게 행정적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대립동 거주를 유도한다. 일곱째, 대립동의 이주민 공동체는 중국 국적인의 대립동 생활과 거주에 편의를 제공하는데, 특히 교회 공동체는 중국 국적인의 대립동 이주에도 적극 일조함으로써 더 많은 중국 국적인을 대립동에 거주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의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대립동 중국 국적인 집중거주지는 향후에도 자민족 단합성을 띠며 성장을 지속하고, 나아가 한-중 양국 간에 초국가적으로 발달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학문적 함의이다. 본 연구는 국내 최대 외국인인 중국 국적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대표적인 집중거주지가 형성된 대립동을 자민족 단합적 특성을 위주로 그 존재기본기능을 통해서 고찰함으로써 국내 외국인 이주민 집중거주지의 연구성과를 보다 다채롭게 한다. 둘째, 사회적 함의이다. 본 연구는 대립동 중국 국적인 집중거주지의 유지 및 발달 동력과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그것이 향후 자민족 단합을 넘어서 초국가적으로 발달할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에 대립동이 그들의 집중거주지이자 한-중 교류의 결절지로 성장하는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그에 대한 적합한 정책을 전개함으로써 국내 이주민 사회의 통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설문지 조사 대상자가 서른두 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립동 거주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의 실제 인구 비율을 미반영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어려운 한계를 보인다. 또한 대립동 존재기본기능 개별요소에 치중한 나머지 그것들의 유기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차후 그 유기적인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대립동 중국 국적인 집중거주지가 유지 및 발달하는 동력과 과정을 보다 잘 규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립동 거주 중국 국적인에 집중된 나머지 대립동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생활 및 거주에 주의하지 않았다. 특히 본 연구는 중국 국적인의 대립동 생활에 집중된 나머지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 간의 갈등과 중국 국적인과 내국인 간의 갈등을 간과했다. 따라서 이

를 거주지 분화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또 다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 1) 본 연구는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을 통칭한 개념으로서 중국 국적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다만 참고문헌이나 인터뷰 대상자가 언급한 조선족, 중국교포, 한족 등의 표현은 그대로 기록했다. 국내 중국 국적인은 1992년 한중수교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약 54만명으로 국내 전체 외국인 수의 54.65%와 국내 전체 인구의 1.06%를 각각 차지한다. 특히 그들은 서울시 서남부의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 2) 이러한 존재기본기능(*grundcbaseins funktionen*) 개념은 독일 뮌헨 사회지리학에서 유래한다. 뮌헨 사회지리학의 이해에 따르면, 행위공간(*aktionsraum*)은 다수의 활동들, 특히 노동부문, 급양부문, 그리고 육구와 생활양식에 따른 거주부문의 활동들이 실행되는 지표공간의 일부분을 일컫는데(안영진 편역, 2003, 사회공간론: 사회지리학 이론 발달사, 한울, 서울, 361p), 이는 그 존재기본기능인 ‘공동생활’, ‘거주’, ‘노동’, ‘급양’, ‘교육’, ‘여가행동’과 이들의 전제조건인 ‘교통과 의사소통’으로 구성된다(박영한·안영진 편역, 1998, 사회지리학: 사회공간이론과 지역계획의 기초, 法文社, 서울, 125-126p). 이에 본 연구는 대립동 중국 국적인 집중거주지를 그들의 행위공간으로서, 그 유지 및 발달을 존재기본기능을 통해 고찰한다. 외국인 집중거주지의 형성은 그 이주만으로도 가능하나, 그것의 유지 및 발달은 존재기본기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 3) 외국인 이주민 집중거주지의 이주국과 모국 간 초국가적 연계 발달은 실제로는 그들의 집중거주지가 이주국 사회와 교류를 확대하면서도 자민족과 모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현상을 해석하기 위한 대안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초국가적 연계 발달을 자민족 단합의 연장선으로 간주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이는 외국인 이주민 집중거주지가 초국가적으로 발달하려면 우선적으로 그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민족 단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 4) 트랜스로컬리티는 기존의 방법론적 초국가주의가 외국인 이주를 단순히 국경을 뛰어넘는 초국적이주로 설명할 뿐 정착 이주가 시작되는 본국의 특정지역과 그것이 정착 및 영유하는 이주국의 특정지역 간의 관계 및 그것들과 이주민의 관계를 규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제기된 개념이다. 즉 기존의 초국가적 개념에 지역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5) “제가 영등포 구청에서 여기로 발령받은 때가, 지금이 4년차니까, 2008년이나 2009년 여름일 거예요. 아마도 대림역 12번 출구 쪽(연변거리 입구)에 중국교포를 상대하는 직업소개소나 노래방이 생기고, 중

식집이나 휴대폰 가게가 얼마 안 지나서 생겼을 거예요. 그 후 이런저런 중국 가게가 우후죽순으로 생긴 것 같고요.”(영등포 글로벌 빌리지 센터 직원, 주무관, 40대 남성)

“여기(연변거리 내) 사거리가 처음에는 한국 음식점도 많고, 한국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5년 전인가? 중국 음식점이 들어오고, 중국어 간판도 여기 저기 보이더니, 지금은 죄다 중국어 간판이에요. 내가 처음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이 동네 주민인 것 같은데, 중국 사람들이 몰려오니깐, 자들끼리 시끄러워서 딴 데로 떠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많이 시끄럽긴 해요. 특히 조선족 사람들 술 먹는 거 말이죠.”(귀화 한국인, 자영업자, 40대 남성)

- 6) 해당 센터는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인(다문화인)의 생활 적응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데, 마침 대립동에 한국어를 잘하는 중국 국적인이 많이 거주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물론, 취업시 도움이 되는 교육까지 지원하여 중국 국적인을 국내 생활에 적응시키려는 취지로 설립된 기관이다.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계약직 1명을 제외하면 모두 공무원으로서 그 중 3명이 영등포구에 나머지 4명은 서울의 기타 지역에 거주한다. 또한 이곳의 예산은 영등포구 자치 행정과와 서울시로부터 지원되는데, 구청보다는 시청 예산이 많으며 구청에서는 오히려 이곳 센터를 감독한다. 한편 지원된 예산은 직원 월급을 제외하면 한국어 교육 및 경연 대회, 컴퓨터 교육, 취업지원 행사, 멘토링 사업 등 센터 운영비용으로 쓰인다, 그러나 최근, 한국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서는 예산 부족난을 겪고 있다.
- 7) 한국어 수업 인원 40명 중, 통상 35명이 중국 국적인이다(센터 인터뷰에 근거).
- 8) 특히 수강인원이 10명으로 제한되는 한국어 특별반은 수강 신청이 초기에 마감되어서 미처 신청하지 못한 중국 국적인, 특히 겨울방학에 한국어를 모르는 자녀를 C3 자격으로 국내에 불러 한국어 공부를 시키려는 한국계 중국인이 아쉬워하는 모습이 센터에서 목격되는데, 이들이 다시 자녀에게 한국어 멘토링 수업을 해줄 자원봉사자를 찾아 동분서주하는 모습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중국 국적인의 열기가 실감난다.
- 9) 이는 중국 국적인이 한-중 간 자신의 가교적 입지를 심분 활용하려는 전략이자 대립동을 그들의 초국가적 연계지로 발달시킴으로써 향후 자신과 가족 및 지인의 한-중 간 이주에서 보다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 10)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통근유형은 그들 거주지와 근무지의 일치여부에 따라서 직주가 일치하는 통근일반형과 직주가 분리되는 통근유출형 및 통근유입형으로 분류된다. 그 중 통근유출형은 거주지보다 거주지 밖에서 근무하는 인구가 많은 유형이고, 통근유입형은 그 반대유형이다. 대립동이 분포하는 영등포구, 구로구 일대는 통근유출형의 대표적인 지역이다(류주현, 2009). 이는 대립동에 거주하는 중국 국

적인 노동 환경에서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전철과 버스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문헌

- 고민경, 2009, 초국가적 장소의 형성: 이태원을 중심으로 바라본 서울의 세계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동식, 2012, 대구 달서구의 외국인 분포와 일상 활동 분석,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영로, 2011, 중국동포(Chinese-Korean) 집단적 거주지에 나타난 지역사회에 대한 중국동 포의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3), 133-156.
- 김현미, 2009, 방문취업 재중 동포의 일 경험과 생활 세계, 한국문화인류학, 42(2), 35-75.
- 류주현, 2009, 외국인 통근 특성에 따른 지역 유형별 비교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4(3), 339-354.
- 박세훈, 2010,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공간적 변화,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23(1), 69-100.
- 박세훈, 정소양, 2010,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 국토연구, 64, 59-76.
- 방성훈, 김수현, 2012, 한국계 중국인 밀집주거지의 분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 가리봉동과 자 양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9(2), 39-68.
- 서지수, 2011, 서울 대림동의 조선족 '통로(portal)'로서 장소성 형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선화, 2008,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대한 도시지역 원주민의 대응: 안산 원곡동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14(2), 123-166.
- 이영민, 2012, 한국인의 교육이주와 트랜스로컬 주체성: 미국 패어팩스 카운티를 사례로, 한국 도시지리학회지, 15(1), 1-16.
- 이영민, 이용균, 이현욱, 2012, 중국 조선족의 트랜스이주와 로컬리티의 변화 연구: 서울 자 양동 중국음식문화거리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2), 103-116.
- 이영민, 이은하, 이화용, 2013, 중국 조선족의 글로벌 이주 네트워크와 연변지역의 사회-공간적 변화,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3), 55-70.
- 이영민, 이종희, 2013, 이주자의 민족경제 실천과 로컬리티의 재구성: 서울 동대문 몽골타운 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1), 19-36.
- 이정현, 2013, 민족별 외국인 집단 거주지의 형성과 발달: 서울시 대림동 소재 중국 국적인 거주지를 사례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정수열, 2008, 인종·민족별 거주지 분화 이론에 대한 고찰과 평가: 미국 시카고 아시아인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3(4), 511-525.
- 정수열, 임석희, 2012, 도시 내 이민자 자영업의 시공간적 역동성: 시카고 거주 한국인 이민 자를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5(3), 376-389.
- 정수열, 이정현, 2014, 이주 경로를 통해 살펴본 출신국가별 외국인 집중거주지의 발달 과정, 서울시 대림동 소재 중국 국적 이주민을 사례로, 국토지리학회지, 48(1), 93-107.
- 한정우, 2008, 안산시 원곡동 이주민의 영역화 과정,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한준섭, 2012, 다문화 마을의 형성주체와 공간적 특성에 대한 연구: 서래마을과 조선족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박영한, 안영진(편역), 1998, 사회지리학: 사회공간이론과 지역계획의 기초, 法文社, 서울, 125-126p(Maier, J., R. Peasler, K. Ruppert & F. Schaffer, 1977, *Sozialgeographie. Braunschweig*, Georg Westermann Verlag).
- 안영진(편역), 2003, 사회공간론: 사회지리학 이론 발달사, 한울, 서울, 361p(Benno Werlen, 2000, *Sozialgeographie. Eine Einfubrung*, Haupt, Bern).
- 국가통계포털 - <http://kosis.kr>
- 서울시 통계 자치구별 외국인 자료 - <http://stat.seoul.go.kr/index.jsp>
- 교신 : 정수열, 110-743,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상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이메일: sychung@smu.ac.kr, 전화: 02-2287-5294)
- Correspondence : Su-Yeul Chung,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Humanities & Social Science, SangMyung University, 20, Hongjimun 2-gil, Jongno-gu, Seoul 110-743, Korea(e-mail: sychung@smu.ac.kr, phone: +82-2-2287-5294)

(접수: 2015.04.07, 수정: 2015.05.09, 채택: 2015.05.16)